해방기 우익 문단의 이데올로기 전략*

- 『백민』지에 게재된 비평을 중심으로 -

김아름**

_ || 차 례 ||

- Ⅰ. 왜『백민』의 비평인가?
- Ⅱ. 『백민』의 필진과 편집 방향
- Ⅲ. 이데올로기 모색 과정
- IV. 이데올로기 고착화 과정
- V. 『백민』의 예술성과 정치성

【국문초록】

『백민』은 1945년 12월에 창간되어 해방기 내내 그 명맥을 이어온 우익 잡지 다. 이 시기는 좌익 문단이 문단 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연구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백민』이 우익 문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데올 로기를 생성해냈는지를 '문학 잡지'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정 문인에 집중된 연구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써 진행된 이 연구는 『백민』 의 필진과 편집 방향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 필진의 이대 올로기 고착화 과정을 두 양상으로 점검하였다.

첫 번째 양상은 이데올로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엿보인 좌익 문단에 대한 비판 양상이다. 김동리, 임긍재는 좌익 문학의 목적성을 강하게 비판하였을 뿐 만 아니라, 조연현, 태윤기는 좌익 문학의 이념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했

^{*} 본 논문은 2021년도 신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는데, 이 연구는 이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담보로 하여 『백민』이 스스로 자기 정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두 번째로 언급하였다. 민족문학에 대해 언급한 이헌구, 김광섭, 순수문학을 언급한 김동리, 조지훈이 좌익 측에 맞서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들 사이의 균열된 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과연 해방기에 『백민』이 꿈꾸었던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가능했는가. 결국 『백민』의 성패 여부는 이 질문에 달려있는데, 이 연구는 『백민』이 이데올로기의 모색과 고착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티테제로 설정한 문학의 '목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익 문단의 권력을 위해 복무한 잡지가 되고 말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개별 문인에게 집중되었던 해방기 이데올로기 생산 과정을 『백민』이라는 집단의 차원, 매체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민족문학, 순수문학, 좌익 문학, 김동리, 조지훈, 김광섭

I. 왜 『백민』의 비평인가?

우리의 해방기 문학사에서 좌익 문단에 비해 우익 문단의 출범은 비교적 늦은 편이다. 해방기란 일반적으로 해방된 이후인 1945년 8월 15일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전의 1948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 해방기는 조성희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상징적 필요조건이 부재한 시기였다. 대타자로서의 민족적 주체가결여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희는 이 시기를 "한반도의 공백을 포착한 강대국들의 신경전"1)이 벌어진 시기로 본다. 부재하

¹⁾ 조성희, 「해방기 순수문학 논쟁에 드러나는 탈근대성 연구」, 『겨레어문학』 48권,

는 대타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열강들의 대립은 당연히 우리 사회 에 갈등과 혼란을 낳았으며, 이러한 혼란은 문단에도 고스란히 퍼져나 갔다. 식민지 시대의 종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각각의 문학 집단들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조직을 정비한 것은 '조선문학건설본부'(이하 문건)다. 이는 '조 선무화거설중앙혐의회'의 산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좌 익계열로 분류되는 문인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김남천, 박태원, 이기영 이원조 이태준 임화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특히 "문화의 해방"을 주 장하였다. 이후, 카프의 후신 격으로 조선프롤레티라아예술동맹이 출범 했다. 이러한 좌익계열로 분류되는 문인들은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면서 사회 무제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익문단의 출범은 늦은 편이다. 이들의 활동은 1946년 3월 13일에 개 최된 '전조선문필가협회'2)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4월 4일에 결성된 '조선청년문학가협회'3)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해방기 우익 문단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 로 부족하 실정이다. 특히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좌익 문단과 우익 문단

겨레어문학회, 2012.6, p.192.

²⁾ 정인보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백민』의 필진인 이헌구, 김광섭, 조연현, 김동리, 조지훈 등도 참여했다.

³⁾ 전조선문필가협회는 각 분야의 문화인들이 결집한 범지식인 단체였으나, 문학인으 로는 박종화, 김진섭, 이헌구, 김광섭 등 몇 명에 의해 지탱된 단체이기도 했다. 따라서 좌익 문학과의 투쟁에 나설 실질적인 단일조직의 필요성을 조선청년문학 가협회가 탄생했다. 박종화가 명예회장직, 김동리가 회장직, 유치화, 김달진이 부 회장직을 맡았다. 우익문단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강경화. 「동북아시아 한 중 일 북한의 정치체제 이데올로기와 문학; 해방기 우익 문단의 형성과정과 정치체제 관련성..『한국언어문화』23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6, pp.80-81 참조.

의 대립 구도로 이 시기 우익문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진설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해방기 좌우의 문단이 형성되어간 과정에 주목하면서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보다 순수한 문인중심의 모임이었다면, 문협은 "단순히 문인들 뿐 아니라 언론인과 출판인을 비롯한 문필가 전부를 포함"⁴⁾한 단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이 과정에서 문협은 "자신들의 우익적 성격의 강조를 위해 반드시 좌익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 아래에 자신들의 역사를 창조해내었다."⁵⁾는 점을 언급한다. 이때, 우익의 정치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순수문학'이 주로 언급된다. 조성희는 "순수문학은 일반적으로 현실이나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예술로서의 작품 자체에 목적을 둔 문학"이기 때문에 도구성, 이념성이나 목적성을 가지고문학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문학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김동리가주도한 순수문학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성이 내재되어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⁶⁾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순수문학 논쟁을 토대로 '순수문학'의 개념에 천착한 연구 흐름도 존재한다. 류양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류양선은 김동리의 '구경적 삶'의 의미를 토대로 "그에게 있어 문학을 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의 순수문학이라는 명칭 사용을 비판한다. 김동리는 순수문학을 가리켜 '문학정신의본령정계의 문학'이라고 하였으나, "'순수문학'이라는 명칭으로는 "높고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문학, 또는 "문학하는 것의 최고 지향"으로서의

⁴⁾ 진설아, 「한국문단사와 '순수', 그 이면을 찾아서」, 『어문론집』 33집, 중앙어문학회, 2005.6, p.196.

⁵⁾ 위의 글, p.211.

⁶⁾ 조성희, 앞의 글, p.197.

문학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찬도 비슷한 맥락에 서 해방기 김동리 비평의 핵심은 "당대의 한국문학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회ㆍ정치적 담론의 장 내부에서 "문학가동맹"의 문학 담론을 부정하 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8)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 은 김동리의 비평뿐만 아니라 소설로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켜 연구의 확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개 김동리를 위시한 특정 문인의 개별 논리에 집중되어 진행된 경향이 짙다. 좌우로 대립되는 '문단'의 집단성이 중요 한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바로 '집단'의 논리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집단의 논리를 표방하여 발행된 잡지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문학 잡지야말로 '문학장' 안에서 논리가 형성되 어가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직후. 좌익 측에서 발간된 잡지의 양이 우익 측의 그것에 비해 압 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1945년 11월에 발간된 『문화 전선』(<문건>기관지)과 같은 해 12월 발간된 『예술운동』(<프로예맹> 의 기관지). 1946년 창간된 『문학』(<문맹>의 기관지)을 비롯하여 『우 리문학』、『문학평론』、『적성』、『예술』、『인민』 등도 좌익 측의 기관지 역 할을 해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익 측을 대변하는 잡지로는 『백민』과 『문예』, 『신천지』정도를 꼽을 수 있다.9)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익 잡지

⁷⁾ 류양선, 「해방기 순수문학론 비판- 김동리의 비평활동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여름호, 실천문학사, 1995.5, pp.397-398.

⁸⁾ 이찬, 「해방기 김동리 문학 연구- 담론의 지향성과 정치성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3, p.318.

⁹⁾ 물론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명백한 시기에도 중간 세력은 있기 마련

에 대한 연구 역시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김준현은 '청문'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우익 잡지의 발달 과정을 짚어내면서, 각각의 잡지에서 문인들이 추구한 매체 전략을 분석한 바 있다.¹⁰⁾ 그 외에도 『신천지』나『문예』에 집중한 논문들이 소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백민』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김한식은 『백민』이라는 매체를 문학 집단의 층위에서 언급하면서, 우익 문단의 잡지들 중에서도 『백민』이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익 문단의 대표적 필진이었던 김동리가 주축이 되어 활동한 잡지일 뿐만 아니라 "『문예』와 『신천지』가 단독 정부 수립 후 안정되고 지극히 우호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발간되거나 영향력을 확대한 잡지"11)인데 비해 『백민』은 해방되던 해, 즉 좌익 문단이 문단 내 우위를 점하던 1945년 12월에 창간되어 해방기 내내 그 명맥을 이어온 잡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김한식의 경우처럼 이병순도 『백민』이라는 매체를 집단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록된 소설들을 맥락화하고, 『백민』이 당시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주목한 바 있다. 특히 이병순은 "당시 진보적 리얼리즘계의 지식인소설과는 달리 고뇌하는 모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2)는 점을 토대로, 소외된 지식인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민족적 우파정신을 짚어낸 바 있다. 진영복이나 김준현은 『백민』의 핵

이다. 잡지 『상아탑』의 문인들, 백철, 염상섭, 김광균 등은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기회주의자로 매도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¹⁰⁾ 김준현,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 '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 대문학연구』 22권, 한국근대문학회, 2010.10, pp.59-85.

¹¹⁾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 상허학회, 『상허학보』 20집, 2007, p.235.

¹²⁾ 이병순, 「『백민』게재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2, 1995.6. 한국현대소설학회, p.175.

심적 문인인 김동리와 김송에 초점화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진영복 은 김동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백민』을 살펴보면서 김동리의 해방기 글쓰기가 좌익의 부정적 형상화를 통해 우익에 의한 민족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13) 김준 현의 경우, 김송을 중심으로 『백민』과 『자유문학』의 단편소설들을 연구 하면서. 그가 발간 주체로 참여한 문예지의 매체 이념을 자신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추적해 냈다.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백민』의 문학사적 중요성을 비롯하여. 해방기 라는 시기에 문학 잡지라는 매체를 토대로 어떠한 매체 이념이 형성되 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문학장'이라는 하나의 개 념 안에서 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략을 규명하기 위해서. '개별 문인'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을 보다 '횡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다. 하나의 문학 잡지 안에서 공동의 '이념'을 추적하는 방식은 해방기 라는 특수성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백민』이 우익 문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생성해냈는지를 문학 잡지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소설 장르나 시 장르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 데올로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비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15)

¹³⁾ 진영복, 「해방 후 문화적 본질주의 글쓰기 양상 연구 -김동리의 『백민』활동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6권, 한민족어문학회, 2010.6, pp.395-426.

¹⁴⁾ 김준현, 「<백민>/<자유문학>의 매체이념과 김송의 단편소설, 『어문론집』제80호, 민족어문학회, 2017.8, pp.69-94.

^{15) 『}백민』에 실린 소설은 총 121편으로, 그 중에는 발행인 김송이 쓴 소설이 13편을 차지한다. 소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념 하에 소설이 창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기보다는 순

『백민』에 실린 비평을 두 부류로 유형화하고, 그것들이 이데올로기화 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백민』이 어떠한 이데올로기 전략을 추 구했는지를 재구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백민』의 필진과 편집 방향

전술한 바대로 해방 이후 문단의 우위를 점한 것은 좌익 문학이었다. 『백민』은 좌익 문단에 대항하기 위해 우익 문단 인사들이 집결한 최전선이었다. 1945년 9월 18일, 박종화, 변영로, 김광섭, 이헌구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중앙문화협회가 1946년 3월, 각계각층의 문필가들이 가세하면서 '전조선문필가협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백민』도 이와 궤도를 같이 하며 창간되어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익 문단의 탄생과정과 함께 『백민』의 발행 과정을 연도별로 병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丑 ´	l〉우익	문단의	형성	과정과	『백민』의	장간	시기
------	------	-----	----	-----	-------	----	----

날짜	내용	대표 문인				
1945. 9.	중앙문화협회 결성	김광섭, 이헌구, 박종화, 번영로				
1945. 12.	『백민』 창간호 발행	김송, 박헌영, 신채호, 이승만, 여운형				
1946. 1-3.	『백민』통 2호, 통 3호 발행	김송, 채만식, 김동인				
1946. 3.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	김광섭, 이헌구 등				
1946. 4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결성	김동리, 김송, 조연현				
1946. 6	『백민』통 4호 발행	김송, 김광섭, 이하윤, 박연희, 백철, 손소희 등				

수 서정시에 초점을 맞추고 게재되는 경향을 띤다. 이 논문에서는 소설과 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게재된 소설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병순, 앞의 글.

1945년 12월 1일, 창간호부터의 필진을 살펴보면, 박헌영, 신채호, 이승만, 여운형 등으로 『백민』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정치성 지향성 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백민』이 종합지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명 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김동리와 평론분과회장의 조연현, 간부였던 김송 등이 『백민』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 흔적들. '전조선문필가협회'의 김광섭이 후반기 『백민』 의 발행을 맡게 된 것 점 등은 『백민』의 사상적 기반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백민』의 발행주기는 초반과 후반에는 규칙적이지 않았으나. 격월간 발행이 주를 이루는 형태를 보인다. 발행은 김송이 맡았으며, 발행처는 백민문화사다. 김송은 편집주간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통 20호부터는 김광섭이 주간으로 참여하였다. 통 22호부터는 제호를 『문학』으로 바꾸 고 편집 겸 발행인 역할을 김광섭에게 부여한다. 창간호 이후 『백민』의 발행 내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백민』의 발행 내역과 주요 필진

연도	총 발행 호	발행 날짜 및 내역	주요 필진				
1945년	1회	창간호(12.1)	김송, 박헌영, 신채호, 이승만, 여운형, 윤승한 등				
1946년	5회	통 2호(1.25)	김송, 채만식, 김동인 등				
		통 3호(3.10)	김송, 채만식, 박문철, 이현구 등				
		통 4호(6.1)	김송, 김광섭, 이하윤, 박연희, 백철, 손소희 등				
		통 5호(10.20)	김동리, 노천명, 박연희, 최태응, 윤승한, 김동인, 정비 석, 손소희, 김송 등				
		통 6호(12.25)	이희승, 백철, 함대훈, 정비석, 박연희, 김안서, 최태 응, 윤승한, 김동리, 이무영 등				
1947년	5회	통 7호(3.1)- 민족문학특집	김동인, 정비석, 김동리, 계용묵, 최태응, 정인택, 박월, 박두진, 서정주, 유치환, 백철, 조지훈, 박종화				

		통 8호(5.1)	모윤숙, 손소희, 노천명, 김광주, 김동리, 이헌구, 김달 진, 김내성 등				
		통 9호(7.1)	설의식, 안회남, 최영수, 임옥인, 윤승한, 김동리, 정비석, 백철, 조지훈, 계용묵 등				
		통 10호(9.5)	김동리, 김안서, 이병기, 조연현, 함대훈, 이희승, 최정 희, 한후구 등				
		통 11호(11.1)	홍효민, 신채호, 한흑구, 서정주, 윤승한, 박연희, 백 철, 김광주, 최정희, 정비석, 김동리, 계용묵, 임옥인, 유치환, 엄흥섭 등				
	5회	통 12호(1.1.)	김안서, 김광섭, 김광주, 곽종원, 손소희, 정비석, 임궁재, 조지훈, 김동리, 서정주 등				
		통 13호(3.1)	이헌구, 백철, 윤동주, 계용묵, 김동리, 최정희, 임옥인, 김광주, 조연현, 변영로, 유치환, 한후구, 김동인 등				
1948년		통 14호(5.1)() 문학재건특집호	서정주, 조지훈, 홍효민, 김동인, 김동리, 백철, 김광 섭, 김광주, 박종화, 한흑구, 함대훈, 박두진, 임긍재, 조연현, 염상섭, 최태응, 정비석, 손소희 등				
		통 15호(7.10)	김동리, 홍효민, 조연현, 임궁재, 이승만, 김광주, 최정 희, 손소희, 유치환, 한흑구 등				
		통 16호(10.1)	김광섭, 김동리, 김송, 채만식, 손소희, 임옥인, 윤승한, 홍효민, 김광주, 정비석, 한흑구, 조지훈, 태윤기, 조연현, 이희승, 백철, 김동인, 염상섭				
	3회	통 17호(1.1.)	김영랑, 이봉구, 채만식, 박종화, 박두진, 김춘수, 박목 월, 임궁재, 조연현, 조지훈 등				
1949년		통 18호(3.1.)	이헌구, 조연현, 함대훈, 구상, 김시습, 임옥인, 박목 월, 유치환, 김동리, 정비석 등				
		통 19호(5.1)	김광섭, 안수길, 김광주, 양주동, 백낙천, 조영암, 손소희, 구상, 박두진, 조연현, 한흑구, 홍효민 등				
1950년	5 3	통 20호(2.1) -현역작가33인집	정비석, 김광섭, 임옥인, 안수길, 박연희, 유치진 등				
		통 21호(2.1)	이헌구, 김영랑, 박두진, 유치환, 구상, 김춘수, 이희 승, 윤고종, 임긍재, 양주동, 조규동 등				
		통 22호(5.1) 22호부터는 『문학』으로 개제	김광섭, 김송, 백철, 김환기, 이병기, 홍효민, 정비석 등				

통 23호(6.10)	한무숙, 계용묵, 노천명, 임긍재, 염상섭 등
통 24호(10.15) 『전선문학』(문학 전시판)	김광섭, 이헌구, 임궁재, 유치환, 조지훈, 서정주, 김 송, 박연희 등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조선문필가협회가 결성되고, 조선 청년문학가협회가 결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백민』에 참여한 필진은 보다 '문학'에 집중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문필가들의 참여 폭이 넓어진 것이다. 특히 『백민』통 4호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광섭, 박연희, 백철, 손소희 등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백민』은 문예지로의 활로를 모색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수의 기성작가들과 신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백민』의 필진은 점차 횡적으로 확 장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백민』은 동인지는 아 니었지만, 고정적인 필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민』의 발행인이었던 김송은 대표적인 필진이기도 했다. 김송은 창 간호부터 총 17번이나 글을 게재했다. 종간호에는 희곡과 함께 김현송 이라는 본명으로 「조국을 그리며」라는 글을 싣기도 하였다. 발표한 글 의 종류도 소설, 평론, 희곡 등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수의 글을 게재한 이는 김동리다. 김동리는 총 13편의 소설과 평 론을 다양하게 발표했으며, 그 외에도 『백민』에서 기획한 설문이나 좌 담회에 단골로 참여하는 필진이었다. 통 19호에 실린 「1949년도 민족문 화운동의 새로운 구상,과 관련된 설문에는 이헌구, 홍효민, 조연현 등 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백민』이 『문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처음 발 행된 통 22호에서는 '삼천만인의 문학'이 지향할 것을 묻는 설문 등에 참여하였다. 그 다음 호인 통 23호에서는 문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 한 고민이 이어졌는데, 「새로운 방향의 문학을 논함」이라는 좌담회에도

김동리는 문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함께 참여한 이는 김기림, 구상 등이었다. 김송과 김동리를 제외하고는, 최태응이 13번, 김광주가 12번, 윤승한과 정비석이 총 11번, 김광섭과 최영수가 총 10번, 『백민』에 힘을 보탰다. 박연희, 박영준, 손소희, 임긍재, 이헌구, 조연현, 한흑구, 홍효민도 『백민』이 발행되는 동안 세 번에 한 번 꼴로는 힘을 보탠 주요한 필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구상 시인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상은 『응향』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응향』사건은, 북조선문학예술 총동맹16)의 지부격인 원산문학가동맹에서 1946년 시집 『응향』을 발간한 데서 비롯된다. 이 시집이 발간되자, 북조선문학예술가 총동맹 차원에서 조선 현실에 대한 현실도피적이고 절망적인 경향을 담고 있다고비판하면서 결정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는 남한 문단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김동리는 구상의 「길」을 예로 들면서 젊은 시인의 문학을 정치적 각도에서만 이해하고 박해한다면, 문학의 자유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17) 따라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구상이 『백민』에 참여한 것은 시사점을 남긴다. 특히 구상은 『백민』에 시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의 문학'에 대한 좌담회에 참여하거나 시에 대한 평론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필진뿐만 아니라, 편집 방향에서도 『백민』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필진뿐만 아니라, 편집 방향에서도 『백민』의 방향성을 엿몰 수 있다. 『백민』은 1947년 3월 1일 발행된 통 7호에서 '민족문학 특집'을 꾸렸는

^{16) 1946}년 3월 설립된 북한의 대표적 예술가 단체로 문학예술분야에서 조선노동당의 노선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다.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을 고양시키며, 작가·예술 인들의 창작사업 지도와 등용 및 축출에 관여한다. 현재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남아 있다.

¹⁷⁾ 김동리, 「문학과 자유의 옹호」, 『백민』 통 5호, 1947. 5, pp.20-22.

데, 이때 권두사의 타이틀은 '문학과 정치'였으며, 조지훈이 「순수시의 지향- 민족시를 위하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48년 5월 1일에 발행 된 통 14호는 '문학재건특집'으로 대표 필진들이 나서서 '조선문학 재 건'에 대한 제의를 담았다. 김동리, 김동인, 백철, 염상섭, 김광섭, 김광 주, 박종화, 한흑구, 곽종원, 윤곤강 등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문단 가 십'이나 '문단인의 표정'을 고정 꼭지로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배치한 점 이나, '문학' 관련 설문조사들을 실시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1949년 1월 발행된 통 17호에서는 민족문화 운동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헌구, 홍효민, 김광수, 최영수, 계 용묵, 조지훈, 조연현, 김동리 등 문인들을 대거 대상으로 삼은 점도 흥 미롭다. 특히 그 호에는 김동리가 발간한 평론집 『문학과 인간』에 대한 서정주, 최태응, 조지훈의 짧은 소회가 적혀 있기도 하다. 이후, 1950년 2월에 발행된 통 20호는 '현역작가 33인집'으로 통 21호는 '시외 평론 특집'으로 꾸려졌다. 이러한 모색의 과정을 거쳐 결국 『백민』은 통 22호 부터 『문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되기 시작한다.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도 통 23호에서 '삼천만인의 문학이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며 꾸준히 문예지로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이 설문에는 염상섭. 정비석. 김동리. 최태응. 김광주. 김래성. 한흑구. 최정희 등이 참여하였다. 이후. 『전선문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통 24 호가 발행된 후, 『백민』의 여정은 막을 내린다.

『백민』이 폐간되기까지 5년 동안 보여준 활동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백민』의 문단 내 좌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이 시기 논문과 평론. 그리고 잡지의 비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잡지 수가 증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를 맞이하여 잡지 수는 비약적으로 증 가한다. 이선영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문학 관련 논문이나 평론을 게재한 잡지의 수는 1936년에 이르러 총 52개가 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이후 이선영은 1940년대의 잡지를 1945년 전후로 구분하고, 해방 이후의 잡지들로 『신천지』, 『백민』, 『문화조선』, 『민성』, 『예술조선』, 『개벽』, 『문학』 등을 언급하면서, 115편의 문학 관계 논문・평론을 게재한 『백민』 등을 비중 있는 잡지로 꼽은 바 있다.18) 특히 해방된 직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창간되었다는 점, 발행 역사가 해방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발행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논문을 게재했다는 점은 『백민』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필진의 중요성도 언급할 수 있겠다. 이선영이 정리한 <연도별 논저 발표자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필자명	편수										
권 환	4	김동석	18	김동리	7	조연현	20	조연현	34	조연현	15
안회남	4	한 효	16	조지훈	7	백 철	15	백 철	24	김동리	10
이원조	4	김남천	12	김남천	5	홍효민	11	김동리	11	홍효민	10
임 화	3	홍효민	10	김동석	5	김동리	10	이헌구	8	백 철	8
김남천	2	백 철	8	백 철	5	한흑구	8	김광주	7	곽종원	5
김동석	2	이원조	8	오장환	5	곽종원	7	정태용	7	염상섭	5
백 철	2	김광균	7	조연현	5	김광주	7	조지훈	7	임긍재	5

〈표 3〉 연도별 논저 발표자 순위. 은 『백민』 필진

¹⁸⁾ 이선영, 『한국문학의 사회학』, 1993, 태학사, pp.39-44.

<표 3>를 토대로, 우리는 우익 문인들의 활동이 1946년을 기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방기 우익 문인들. 특히 『백민』의 필진들이 실로 빠른 속도로 비평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백철, 홍효민, 김동리, 조연현으로 이어지는 다수 논저 발표자들이 모두 『백민』의 필진이기도 했다는 점 을 토대로 우리는 충분히 우익 문단이 외연을 넓혀나간 저간의 사정을 집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김동리는 통 5호부터 통 13호까지는 한 호도 쉬지 않고 연속적 으로 글을 발표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좌우간의 좌우」(통 5호). 「문학과 자유의 옹호- 시집 응향 관련」(통 9호), 「민족문학과 경향문학 - 문학의 각태」(통 10호),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문학의 내용적 기 초를 위하여 (통 13호),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환경- 본격문학의 내용 적 기반을 위하야.(통 15호) 등이 모두 『백민』에 발표된 것이다. 조연 현도 1947년 후반부터 1949년 초반까지 8편의 글을 싣는 등 『백민』의 우익 이념 논리 생산에 앞장섰다. 「<논리와 생리> 유물사관의 생리적 부적응성,(통 10호), 「고갈한 비팡정신,(통 13호), 「문학의 영역,(통 14 호). 「문학과 사상: 문학에 있어서의 사상성」(통 15호). 「애욕의 문학: 윤리의 상실과 가장」(통 16호) 등이 모두 『백민』에 발표된 것이다. 이 외에도 홍효민이 「신세대의 문학- 조선문학이 나아갈 길」, 「순수문학 비평., 「문학의 역사적 실천- 조선적 리알리즘의 제창, 등을, 이헌구가 「민족문학 정신의 재인식」, 「문학운동의 성격과 정신」 등을 『백민』에 게재하였다. 민족문학 관련 담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흑구는 「미국문학의 진수」, 「최근의 미국문단」 등을 발표하여 미국 문학의 소개에 앞장섰으며, 백철도 「문학작품에 있어서 사실과 낭만의

세계」, 「문화와 비판정신」 등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이러한 비평 담론의 주된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할 수 있다.

Ⅲ. 이데올로기 모색 과정

『백민』의 필진이 내세운 비평의 첫 번째 양상은 우익 문단의 이데올로기를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계급이 없는 민족의 평등과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이 땅의 문화를 자유스러이 발전"19)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간호를 내보낸다는 창간사는 『백민』이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때의 민족은 "계급이 없는 민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발행인 김송은 후일 다음과 같은 말로 『백민』의 창간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예상치도 않았던 두 개의 진영이 대립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붉은 물결이 출렁거렸다. 즉 공산당 계열의 세포 조직이 물샐 틈 없이 각 분야에 걸쳐 우익 진영을 방해하면서 분별이 없는지 분간할 수 없을만큼 해방의 선물은 자주 독립이 아니고 적색 공산화라고 느낀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신문과 벽보를 통한 여론이었다.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며칠을 두고 생각한 결과 민족을 위해서 물심을 송두리째 바치리라! 하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²⁰⁾

^{19) 『}백민』 창간호(통 1호), 1945. 12, p.3.

²⁰⁾ 김송, 「백민시대」,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83, p.275

김송의 회고를 살펴보면, '붉은 물결', '공산당 계열의 세포조직', '적 색 공산화'에 대한 공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를 통해서도 『백민』이 좌익에 대한 안티테제로 탄생했음을 충분히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분야에 걸쳐' 방해받는 '우익 진영'을 위하는 길 이 나아가서는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김송의 논리는 『백민』이 '좌익' 에 반대하면서 '민족'을 추구한다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송으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백민』의 지향점은 창간호를 지나 통 2 호에 이르면, 이희철에 의해서 좀 더 현실적인 고민으로 발전한다. "문 제는 이제부터다. 조선 안에 있는 인민공화국과 해외서 도라온 임시정 부를 여하히 조화시킬 것인가"21)라는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그는 "인민 공화국이 조선인민의 일부의 의사를 대표하고 또 그것이 진보적 민주 주의를 담하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금일의 국내 및 국제정세로 미루어 해체하는 것이 조선독립을 위하여 관대한 아량이라 생각한다"고 주장 하면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임시정부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한다.

통 3호에서도 본지주가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은 외력에 의해 서 성립될 성질인 것을 누구나 인식하는 터"라고 전제하면서 "정치적으 로나 경제적으로나 해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견해를 이어나간 다. 특히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가 열린 모습을 보고 분열을 걱정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인민을 행복스러이 하라는 애국심을 품은 지도 자라면 左右양익으로 분열하야 싸울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 의 대외관계를보아도 좌우니 민족이니 공산이니 하는 문구조차 사용할 거덕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해방 자체가 연합국의 승

²¹⁾ 이희철, 「조선은 어찌되는가」, 『백민』통 2호, 1946.1, p.7.

리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네들의 손으로 정부까지 세워 달나고 의뢰한다면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三천만의 불신임을 받고야말 것"이라고 단언한다.^{22) 『백민』의} 이러한 입장은 우익 집단의 정치 논리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이 글은 『백민』이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처럼 초창기의 『백민』지가 지니고 있던 입장은 김동리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는 경향문학에 대하야 순수문학이란 대칭을 쓴다. 그러면 경향문학이란 무엇이며 순수문학이란 무엇인가? 먼저 경향문학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해보자. 경향문학이란 문자 그대로 '경향진 문학' 즉, '한쪽진 문학'이다. 한쪽에 기우러진 문학이다. 정상적인 문학이라던가 본격적인 문학과는 정반대의 문학이다.²³⁾

인용문은 김동리 비평의 한 대목일 뿐이지만, 우익 문단의 자기 정위 감각을 짐작케 해준다. 『백민』의 비평 대개가 그러하듯이, 그들은 애초에 좌익 문단에 대한 안티테제로 탄생했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데 좌익 문단을 적극 비판하는 방식을 택한다. 김동리가 『백민』에 발표한 일련의 글들²⁴⁾이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문학과 자유의 옹호」도그 중 하나다. 1946년 시집 『응향』필화 사건²⁵⁾이 남한 문단에도 알려져

²²⁾ 본지주간, 「장래의 조선은 누가 지도하게 되나?」, 『백민』통 3호, 1946. 3, pp.5-6.

²³⁾ 김동리, 「민족문학과 경향문학」, 『백민』 통 10호, 1947.9, p.20.

²⁴⁾ 해방기에 『백민』에 발표된 김동리의 주요 평론은 다음과 같다. 「좌우간의 좌우」(통 5호), 「문학과 자유의 옹호- 시집 응향 관련」(통 9호), 「민족문학과 경향문학- 문학의 각태」(통 10호),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문학의 내용적기초를 위하여」(통 13호),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환경- 본격문학의 내용적기반을 위하야」(통 15호)

조연현, 곽종원, 임긍재가 이를 공박했는데, 이때 김동리는 북조선문학 예술총동맹의 결정이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러한 사상을 "표면에 들어내지 않고, 자기들도 작가 의 개성을 인정한다는 듯이 수단을 써"왔을 뿐이며, 이번 사건은 "정면 으로 그들의 본색을 들어내어 놓"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탄적인 태도를 버리란 것은 참다운 의 미의 문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규탄한다. 문학은 '인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작가자신'에게 복무할 따름이며. 인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불여의"를 지녔기 때문에 회의적이고 염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6) 따라서 그는 문학을 정치적 각도에 서만 이해하고 '젊은 시인들을 박해'하다는 것은 '문학의 자유발전'을 가 져올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이때 김동리가 중요하게 여겼 던 것은 문학이 지닌 자율성의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학의 자율성은 임긍재에 이르면 '문학정신'으로 개념화된 다. 임긍재는 해방기 이후에도 「정치주의 문학의 비문학성」27)에서 김 동리와 비슷한 화법으로 계급문학에 대한 공박을 재생산한다. 임긍재는 우파의 논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우적 편향을 드러낸 사람'28)으로 평 가받는데, 이 글에서 그는 공산문학을 '정치주의문학'이라고 명명하면

²⁵⁾ 이는 광복 기념 시집으로, 이를 출간한 원산문학가동맹의 위원장은 박경수였다. 강홍운, 구상, 서창훈, 이종민, 노양근 등의 시가 실렸고, 이중섭은 장정을 맡았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서는 이 시집이 '조선 현실에 대해 회의적이고 공상적이 고 현실도피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북조선문예운동을 좀 먹는 것"이라고 언급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²⁶⁾ 김동리, 「문학과 자유의 옹호」, 『백민』통 9호, 1947, 7, pp.50-56.

²⁷⁾ 임긍재, 「정치주의 문학의 비문학성」, 『백민』 통 21호, 1950.3, pp.93-95.

²⁸⁾ 김영진, 『해방기의 민족현실과 문학비평』, 우리문학사, 1994, p.211

서 그 이유에 대해 "정치주의문학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의식 밑에 하나의 문학적 방편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좌파 문학은 공산주의적 정치이념을 떠나서는 창작활동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학은 아예 '문학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다고 평가 내린다.

금일에 있어 정치주의문학은 이것(유물주의사상-인용자)을 계승하고 혹은 선전하고 때로는 선동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주의문학의 가치는 이러한 계승과 선전과 선동 이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승과 선전과 선동의 창작방법은 제멋대로 문학하는 각자의 자유의의에 대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식과 원칙밑에서 이루워지지않으면 반동분자라는 '렛텔'을 부쳐가지고 그 크룹에서 축방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 공식과 원칙이라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여기에 문학정신이 있을리 만무할 것이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 인정과 눈물, 사랑과 실연이 있을 리 만무할 것이다.²⁹⁾

그는 정치주의 문학은 분명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식과 원칙만 있을 뿐, '문학정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학-비문학의 이분화 논리는 우익-좌익의 이분화로 환원되고, 후자의 것은 강한 매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임궁재는 좌익의 소설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을 언급하면서 "천편일률로 공식적인 인조인간"이라거나, "인간성을 무시한 매섭고 냉철한 인물"이라거나, "조국도 민족도 가족도 없는 냉혈적인 인물들 뿐"이라며 강경하게 매도한다. 이렇듯 『백민』의 필진들은 우익에 대한 길항으로서 좌익을 규탄하고, 그들의 '비문학성'을 근거로 '좌익문학'(=정치문학=경향문학=당의 문학)을 표적화하는

²⁹⁾ 임긍재, 앞의 글, p.94.

작업을 실시해왔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좌익의 이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작업도 꾸준히 벌였다. 조연현과 태윤기에 의해 이루어진 유물사관에 대한 성 찰과 검토가 그것이다. 조연현은 「논리와 생리」30)에서 '유물사관의 문 학'을 '논리의 문학'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그는 '논리'는 현실의 다양성 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물사관과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현실의 일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 '생리'라는 개념을 끌 어온다

대체로 논리가 한 개의 개념이라면 생리란 인간의 현실, 그 자체일 것이 다. 아무리 현실을 완벽하게 이론화하였더라도 논리가 현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생리는 어느 인간이고 자기의 생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생리는 인간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논 리가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생리는 생명적으 로 영위하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이다.31)

즉. 조연현에 따르면 생리는 논리보다 선행하며, 더 본질적인 것이다. 모든 논리적 추진에 대한 생리적 거부를 통해. '유물사관'이 인간의 생 리에 부적응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봉준이 지적 했듯이. '정치'가 '논리'를 동일한 계열로. '문학'과 '생리'를 동일한 계열 로 두는 것을 가정했을 때. 조연현은 '인간'과 '생리'가 '문학'과 '정치'가 결합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32) 따라서 논리.

³⁰⁾ 조연현, 「논리와 생리- 유물사관의 생리적 부적응성」, 『백민』 통 10호, 1947.9, pp.47-49.

³¹⁾ 조연현, 위의 글, p.49.

즉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유물사관을 토대로 하는 좌익 문학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태윤기 역시 해방기 이후에도 유물사관에 대한 검토로부터 좌익에 대한 칼날을 내세우는 방식을 고수한다. 「경향문학의 검토」33)에 따르 면, 최근의 경향문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계급투쟁의 혁명문 학' 즉 공산주의 문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문학이 성립하는데 필요 한 것은 그래서 '푸로레타리아-트'가 된다. 이때 프롤레타리아는 노동 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동계급을 이르는 것인데. 태 윤기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경향문학의 모체다. 이러한 경향문학은 객 관적, 사실적, 구체적, 적극적인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문학의 사명이 "위안이 아니라 투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향문학은 미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세계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혹은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내용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혁명적 분자를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태윤기는 '경향문학의 본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은 그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기보다. '철학-세계관을 검토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부연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말 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최선'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백민』의 필진들은 좌익과 우익을 대립 관계로 설정하는 데

³²⁾ 고봉준, 「조연현 비평에서 '문학'과 '정치'」, 『한국근대문학연구』 22권, 2010, 10, p.100.

³³⁾ 태윤기, 「경향문학에 대한 검토」, 『백민』통 16호, 1948.10, pp.142-147.

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동리, 임긍재를 통해 좌익 문학의 목적성을 비문 학성으로 규탄하였다. 한편, 조연현이나 태윤기 등을 통해 좌익 문학의 이념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특히 논리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생리'를 설정하고, 정치보다 '문학'을 상위의 개념으로 환치시 킨 조연현의 방식은 김동리, 임긍재가 문학의 자율성과 문학정신을 '경 햣문학'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방식과 닮아있어 눈길을 끈다. 즉. 우익 문학은 좌익 문학의 안티테제로서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의 문학, 보다 '우위'에 있는 문학으로 설정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담보로 하여 『백민』은 스스로 자기 정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양상을 보인다.

IV 이데올로기 고착화 과정

안티테제가 안티테제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안티테제 이 상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종합(synthese)으로서의 주류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민』이 해방기 좌익 문단과 대립 구도를 세우 면서 다른 한 편에서 진행한 작업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익 문 학'의 활로를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민족문학과 순수문 학의 주창으로 양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좌익의 반대급부로서 '민족문 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방향이다. 전술한 바대로 『백민』을 창간하고 발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김송의 창간사를 보면, 『백민』의 창간 이념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백민』은 너무 노골적인 표제라고 평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는 혼란기에 처하여 노골적으로 백의민족을 표현하고 싶어『백민』두 글자를 표제로 내세웠던"34)것이라는 김송의

발언이 그것인데, 우리는 이처럼 제호에서부터 『백민』의 창간 이념이 무엇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좌익에 맞선 잡지라는 의미를 내포하면 서도 좌익이 내세운 '계급'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민족' 개념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백민』이었던 것이다. 특히 좌익의 '계급'에 대한 길항으로 존재하는 '민족' 개념은 김송의 설명대로 '백의민족'의 줄임말인 '백민'이 끌고 가야할 숙명적인 어떤 것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기 담론장에서 '민족' 이데올로기는 좌익과 우익을 불문한 헤게모니 투쟁의 출발점이었으며, 민족국가 건설 과제에 대한 응답의 결과³⁵⁾이기도 했다. 근대를 초극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민족' 이데올로기는 물론 각 진영의 입장에 맞게 다층화된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백민』은 표제에서부터 이미 헤게모니 투쟁의 참전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백민』은 통 6호에 이르러서 「본지의 제호에 대하야1」라는 글을 통해 '밝음'과 '광명'을 언급하면서 "깨끗하고 명철한 우리 민족성"³⁶⁾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민족'담론, 혹은 민족문학의 이데올로기화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은 김광섭과 이헌구라고 할 수 있다. 김광섭은 기본적으로 민족문학론에 대한 논리를 끊임없이 생산해왔는데, 『백민』에도 이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면서 그의 민족문학 담론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³⁷⁾에서 그는 문학은 시대와 함께 움직이며 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와 민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³⁴⁾ 김송, 「백민 시대」,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83, p.275.

³⁵⁾ 배지연, 「해방기 '민족'이라는 기호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임화의 '민족', '민족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12, p.171.

³⁶⁾ 편집국원, 「본지의 제호에 대하야(1)」, 『백민』통 6호, 1946.12, p.3.

³⁷⁾ 김광섭,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 『백민』통 12호, 1948.1, pp.4-8.

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문학의 현실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 호에 참여한 이헌구도 '민족문학 정신의 재인식」이라는 글 을 통해 민족의 현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38) 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예술보다 한층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감 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올바른 비판에 문학의 임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김광섭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김광섭은 사회 의 반영으로서 시대를 표상할 수 있는 것을 문학이 담당해야 한다고 여 겼다.

정치건 문학이건 기타 일반 정신과학이건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적어도 현단계에 있어서는 민족주체가 염원하는 바가 그 무엇인 것을 파악하여 근 본이념으로 하여야 할 것이오. 다음으로 계급의식을 고조하여 계급의 이익 을 옹호하더라도 민족이 해방되지 못한 이상 계급해방이었다는 관점에서 계급을 위하여 민족은 파괴하여서는 안될 것이오. 따라서 계급만을 위한 계급의 독재를 초래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문학이나 예술이 비록 초현실적 태도를 취한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당면한 문학내지 예술운동은 정치라던지 과학이 빚어낸 현실적 환경을 만족하지 말고 문학 이 문학을 위한, 예술이 예술을 위한 자유로운 환경을 독자적으로 달성하 여야 할 것이다.39)

'계급'보다는 '민족'을 내세우면서 좌익문학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 고. 그것을 '민족'의 문제로 환원시켜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는 김광섭의 논리는 우익 문단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는 이처럼 『백 민」에 실린 여러 편의 글에서 이러한 '민족(문학)'개념을 강조하는데.

³⁸⁾ 이헌구, 「민족문학 정신의 재인식」, 『백민』통 13호, 1948.3, pp.4-7.

³⁹⁾ 김광섭, 「민족문학을 위하여」, 『백민』통 14호, 1948.5, p.30.

이러한 민족 이데올로기에는 '계급'보다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비추어볼 때, 그의 비평 작업은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하게 하는 작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광섭이 글 제목에서부터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를 강조하고, 사회의 반영으로서 시대를 표상할 수 있는 것을 문학이 담당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처럼, 이헌구 역시 문학이 사회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헌구는 1950년 3월에 발행된 『백민』에서 "일부예술지상의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친일문인들이 공산진영의 모략에 빠져 또는 그들의 본성대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매명적 자살행위를 감행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때문에 "민족적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한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시로 변전하는민족의 운명 앞에 나서 용감히 그 전면모를 바로 잡아드려 민족이 투쟁하고 고민하는 산 기록을 창작"40)해야 한다는 이헌구의 주장은, 이헌구와 김광섭이 같은 맥락에서 '민족문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1)

이 두 필진과 순수문학을 주장한 필진들이 궤도를 달리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순수문학이건, 민족문학이건 기본적으로 우익 문단 의 인물들은 좌익문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 지만, 민족문학을 주장한 인물들은 사회의 반영으로서 시대를 표상할

⁴⁰⁾ 이헌구, 「문학운동의 성격과 정신」, 『백민』 통 21호, 1950.3. p.7.

⁴¹⁾ 특히 이헌구와 김광섭은 중앙문화협회의 주요 인물로, 1920년대에 함께 일본유학을 했던 '해외문학과'라인이기도 하다. 동향이자 같은 시기에 유학한 이헌구와 김광섭의 인간관계는 해방기 우익문인단체를 비롯하여, 『민주일보』 등으로 이어진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고봉준, 「한국전쟁 전후 이헌구의 '문화' 인식과 '반공'의 논리」, 『우리문학연구』 68, 우리문학회, 2020.10, p.22.

수 있는 것을 문학이 담당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문학이 아무런 사명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순수문학'의 개념과는 다소 상반된 개념으 로 논리를 발전시킨다는 데에서 이들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문학의 개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순수문학의 개념은 『백 민」의 비평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백민』은 이 순수무학 담론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창구의 역할을 했다. 조지훈이 작성한 「순수시의 지향」은, 비평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문학의 순수성을 전면에 내세운 글이다. 이때, 조지훈의 순수문 학관은 민족문학관과도 맞닿은 채 출발하였는데. 다음의 글은 그러한 접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순수한 시정신을 지키는 이만이 시로서 설 것이오 진실한 민족정신을 지 키는 이만이 민족시를 이룰 것이니 시를 정치에 파는 경향시와 민족의 해 체를 목표로 하는 양두구육의 민족시인 계급시의 결탁은 도리혀 시 및 민 족시의 한 이단이 아닐 수 없다. (중략) 본질적으로 순수한 시인만이 개성 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가성의 해방을 전취하는 혁명시인이며 진실한 민족 시인만이 운명과 역사의 공동체로서 민족을 자각하고 정치적 해방을 절규 하는 애국시인일 수 있는 것이다.42)

조지훈에 따르면 순수시만이 개성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간성의 해방 을 전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를 쓰는 시인, 즉 순수시인이야말로 민 족시인이며, 애국시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순수문학과 민족문 학이 만나는 기묘한 우익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순수문학 논쟁을 주도한 김동리는 『백민』을 통해서도 '순수문

⁴²⁾ 조지훈, 「순수시의 지향-민족시를 위하여」, 『백민』통 7호, 1947.3, p.167.

학'의 개념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학과 자유의 옹호,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응향 사건을 비판하면서 "문학이란 아무 것 에도 복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있다면 자기 자신에 환원할 수 있는 인류 전체가 있을 뿐이다."43)라고 언급했는데, 이 글은 김동리가 주장한 순수문학이, '인민'에 복무하는 '좌익의 민족문학'과 대립한 결과 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 김동리는 『백민』의 그 다음 호에 「민족문 학과 경향문학-문학의 각태,를 발표하면서 순수문학, 본격문학, 민족문 학의 개념에 대한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 준다. 물론 김동리는 이 전년도부터 "순수문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문 학정신의 본령정계의 문학"이라면서 문학정신의 본령은 "인간성 옹호" 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44) 특히 "민족문학이면서 곧 세계문학의 지 위를 확립하는 데 이 땅 순수문학 정신의 전면적 지표가 있다"는 언급 은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을 지향함으로써 순수문학을 획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논리를 『백민』을 통해 다시 발표하면서 순수문학과 경향문학을 구분하고, 순수문학을 다시 소극적 경향의 예술 지상주의 문학, 적극적 경향의 정통문학으로 나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참다운 문학을 가지는 날에 비로소 "참다운 민족문학이요 또 조선문 학"45)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물론 그의 비평은 계급문학 을 비판하고자 했던 시도가 담겨진 것이었으나. 그는 여기에서 경향문 학을 이러한 계급문학, 즉 당에 통하는 문학과 '본격문학'에 통하는 문 학으로 양분하면서 '경향문학' 자체를 좀 더 개념적으로 세분화시키는

⁴³⁾ 김동리, 「문학과 자유의 옹호」, 『백민』 통 5호, 1947. 5, pp.20.

⁴⁴⁾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민족문학의 당면과제로서」, 『서울신문』, 1946.9.15.(이 글에서는 김동리,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p.79 참고.)

⁴⁵⁾ 김동리, 「민족문학과 경향문학- 문학의 각태」, 『백민』 통 10호, 1947. 9, p.21.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후에도 『백민』은 '순수문학'의 개념을 이데올로기화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보여준다. 1948년 통 15호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여실하게 드러 나 있다. 잘 알려진 김동리의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본격문학 의 내용적 기초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임긍재의 「문학과 현실」, 조연 현의 「문학과 사상」 모두 이 호에 실린 글들이다. 『백민』이 특정 주제를 토대로 지면을 꾸리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던 매체라는 점을 감 안했을 때, 이 호는 사실상 '문학'의 개념을 '순수문학'의 관점에서 총체 적으로 접근해본 호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동리는 이 글에서 "문학은 문학적 사상의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언급하며, 문학 적 사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경적 생의 형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46) 한편 조지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백 민」을 통해 문학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유물사관과 꼼꼼하게 비교 하는 글을 발표한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근본과제,47)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 조지훈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문학정신에 대한 기본 문제로, 이 것은 독자성과 종속성의 문제로 국한된다. 두 번째는 문학하는 태도에 대한 기본 문제로, 이것은 결국 예술성과 공리성 문제로 환원된다.

조지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차례로 설명하기 위해 문학은 지적인 것 이 아니며. 윤리 도덕과도 별개의 범주에 든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글을 시작한다. 문학이 주는 감동은 미의 범주에 드는데, 그 미는 아름다운

⁴⁶⁾ 김동리,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본격문학의 내용적 기초를 위하여」, 『백민』 통 15호, 1948. 7, pp.4-10.

⁴⁷⁾ 조지훈은 이 글을 『백민』 1948년 10월 통 16호(「'문학의 근본과제'- 문학의 독자성 과 종속성에 대하여,)와 다음 (문학의 근본과제-문학의 예술성과 공리성」)에 나누 어 발표한다.

꽃을 볼 때 받는 느낌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문학은 문학을 통해서만 "그 진선미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과 길이 없으니 그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독자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조지훈의 결론이다. 유물사관에 따르면 예술 현상은 오로지 물질생활의 반영일 뿐이지만 문학은 반영 모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적극적 존재'라는 것이다. 문학이 이러한 독자성을 가지는 한, 문학인은 먼저 그 '자율성'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가치에 복속하게 되면 그 독자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한다. 문학정신의 옹호는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이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훈이 설명한 두 번째 문제는 '문학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그는 이를 예술성과 공리성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이 문제는 곧 예술이 예술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조지훈은 앞서 언급한 유물사관을 다시 끌어오는데, 그에 따르면 유물사관에 입각한 예술관은 "일체의 예술을 도덕적 · 실용적 · 공리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문학을 물질생활, 경제투쟁을 위한 도구문학, 선동문학으로 화하게"한다. 그런데 조지훈의 주장은 이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 예술의 공리성은 '예술성'을 기초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은예술이 되어야만, 문학은 문학이 되어야만 그가 맡은 선전과 감화가 더절실하게 효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와도 같은데, 이를 통해 조지훈은 '예술의 본령'을 지키는 문학을 해야 '바른 문학'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문학하는 태도'의 모법답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예술의 본령을 지키는 문학이란 '예술의 독자성'을 옹호하는 문학과도같은 것이다.

이처럼 조지훈에 이르러 선명해진 '문학의 독자성'이라는 『백민』의

순수문학에 대한 입장은 좌익의 문학이 다른 가치에 '복속'해 있는 데 비해 우익의 문학은 문학 그 자체로 독자적이며, 좌익의 문학은 예술을 도구로 보는 데 비해 우익의 문학은 예술 그 자체로 예술성을 지닌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 면, 이미 김동리가 1939년부터 내세웠던 문학의 주요 테제다. 당시 김동 리는 유진오가 "모든 비문학적인 야심과 정치와 책모를 떠나 오로지 빛 나는 문학정신만을 옹호하려는 의연한 태도"48)야말로 '순수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동리를 비판하자. 이후 발표한 글에서 유진오가 주장한 순수란 기실 신진작가들이 지닌 것이라고 공박한 바 있다.49) 김동리는 이때부터 순수문학 이론의 기수 역할을 맡아왔다고 할 수 있다. 『백민』 에까지 이어진 순수문학에 대한 입장은 좌익 문학에 대립되는 것으로 서 우익 문학을 설정하고, 민족, 순수, 자율성의 측면에서 자기 정위를 시도한 작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우익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강 조하는 방편으로서 문학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비평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V 『백민』의 예술성과 정치성

전통적으로 문학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학사회학적 입장 과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입장은 오랫동안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⁴⁸⁾ 유진오, 「순수에의 지향순수에의 지향-특히 신인작가에 관하여」, 『문장』 1권 5호. 19396

⁴⁹⁾ 김동리, 「순수 이의」, 『문장』 1권 7호. 1939.8.

여겨져 왔다. 그리고 그 양 극단에는 문학 작품을 특정한 계급적 이해 관계의 표현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문학 언어를 어떤 외적 현실도 지시하지 않는 자율적 단위로 보는 형식주의적 입장이 놓여있 음을 상기할 때, 이 연구는 『백민』의 필진들이 두 가지 양상으로 자신들 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사회학적 입장을 지닌 좌익 문단에 대한 비판 양상을 우선 언급하였다. 김동리, 임긍재를 통해 좌익 문학의 목적성을 강하게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연현. 태윤기 등을 통해 좌익 문학의 이념 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해온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담보로 하여 『백민』은 스스로 자기 정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를 생산해내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족문학에 대해 언 급한 이헌구, 김광섭과 순수문학을 언급한 김동리, 조지훈 등이 좌익 측과는 정반대로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이 그것이다. 이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전술한 바대로 김광섭 식으 로 바꾸어 말하면, '문학이 문학을 위한', 그리고 '예술이 예술을 위한' 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김동리 식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순수성', 조 지훈에 이르면 '예술성'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문학 그대로 독자적인 예술이라는 『백민』의 논리는 좌익과 분명한 대립점을 낳지 만,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백민』이 호를 거듭하면서 날카 롭게 벼리던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이라는 칼날은 그들 스스로가 언 급한 민족문학의 목적성과 충돌하면서 다시금 무디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인 테리 이글턴의 "미적인 것"에 대한 지적을 떠올리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테리 이글턴에 따르면 미적인 것 은 애초에 양날을 가진 모순된 개념이다. 미적인 것은 진정한 해방의

힘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율과 자결을 예시해주고, 개체와 전체 사이 의 연계를 새롭게 하고, 관습, 정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들을 교정하는 등 정치적 열망들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적인 것은 사회적 권력을 거기 예속된 이들의 육체 깊숙이 주입하고, 그리하여 정치적 헤게모니의 극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동원되 는 '내면화된 억압'을 보여준다.50)

이러한 미적인 것과 이데올로기가 연결되는 지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백민』이 좌익 문학에서 해방되어 '문학의 자율성'을 꿈꾸었으나. 우익 문단의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여 이데올로기화되 어 버린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김한식이 1949년, '중앙 문화협회' 출신 문인들이 『백민』의 주요 필진이 되고 『백민』을 통해 활 발한 활동을 벌이던 '청문협'의 김동리, 조지훈, 조연현 등은 이후 글을 싣지 않게 되면서. 또 이후 『문예』를 통해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1949 년 19호를 끝으로 『백민』은 생명을 다한 셈이라고 평가51)한 것도 비슷 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듯 수많은 '제도'와 이해관계가 둘러싸고 있는 사 회에서 과연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이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 있는가. 특히 자신들의 이념을 제도화하고 헤게모니를 쟁취하기에 급급했던 사 회적 혼란기, 즉 해방기에 이러한 문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은 가능했는 가. 결국 『백민』의 성패 여부는 이 질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위해 『백민』의 편집 방향을

⁵⁰⁾ 테리 이글턴 저, 방대원 역, 『미학사상』, 한신문화사, 1999, p.20.

⁵¹⁾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상허학보』 20집. 상허학 회, 2007, p.237.

점검하고, 스스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생산 · 재생산하는 데 앞장섰는 지를 매체 전략의 차원에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문학이 자율적인 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52)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을 때, 이 연구는 『백민』이 탄생하여 우익 문단의 융성을 실현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마감해간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사회 체제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했다. 따라서 당대의 문학을 당대의 비평들로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을 토대로, 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해방기 이후 우익 문단의 논리는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향후 과제가 남아 있다.

⁵²⁾ 김태환, 「자율성 개념과 문학사회학」, 『문학과 사회』(가을호) 2001. 8, 문학과 지성 사. p.1060.

【참고문헌】

〈기본자료〉

『백민』

〈논문자료〉

- 강경화 「동북아시아 한 중일 북한의 정치체제 이데올로기와 문학; 해방기 우익 문단 의 형성과정과 정치체제 관련성.. 『한국언어문화』 23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6, pp.75-98.
- 고봉준, 「조연현 비평에서 '문학'과 '정치'」, 『한국근대문학연구』 22권, 한국근대문 학회, 2010, 10, pp.87-111.
- . 『한국 전쟁 전후 이헌구의 '문화' 인식과 '반공'의 논리.. 『우리문학연구』 68. 우리문학회, 2020 10, pp 7-35
- 김동리. 「순수 이의」. 『문장』 1권 7호 1939 8
- 김준현.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 : '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 대문학연구』22집, 한국근대문학회, 2010.8, pp.59-85.
- ,「〈백민〉/〈자유문학〉의 매체이념과 김송의 단편소설」,『어문론집』제80호, 민 족어문학회, 2017.8, pp.69-94. I410-ECN-0102-2018-700-000723828
- 김태환, 「자율성 개념과 문학사회학」, 『문학과 사회』 14호, 2001, 8, 문학과 지성사, pp. 1059-1082.
-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 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상허학보』 20집, 상허학회, 2007, pp.231-270.
- 류양선, 「해방기 순수문학론 비판 김동리의 비평활동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 38호, 실천문학사, 1995.여름. pp.384-402.
- 배지연, 「해방기 '민족'이라는 기호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임화의 '민족', '민족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12, pp. 153-179, I410-ECN-0102-2014-800-001547736.
- 유진오, 「순수에의 지향순수에의 지향 특히 신인작가에 관하여」, 『문장』 1권 5호.
- 이병순,「『백민』게재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5.6, pp. 141-178.

100 韓民族語文學 第95輯

- 이 찬, 「해방기 김동리 문학 연구 담론의 지향성과 정치성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3, pp.290-322.
- 조성희, 「해방기 순수문학 논쟁에 드러나는 탈근대성 연구」, 『겨레어문학』 48권, 겨레 어문학회, 2012, pp. 191-221, 1410-ECN-0102-2012-710-003071514.
- 진설아, 「한국문단사와 '순수', 그 이면을 찾아서」, 『어문론집』 33집, 중앙어문학회, 2005,6, pp.191-215.
- 진영복, 「해방 후 문화적 본질주의 글쓰기 양상 연구 김동리의 『백민』 활동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56권, 한민족어문학회, 2010.6, pp.395-426. I410-ECN-0102-2012-810-000887146

〈논저〉

강진호.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83

김동리,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김영진, 『해방기의 민족현실과 문학비평』, 우리문학사, 1994.

이선영, 『한국문학의 사회학』, 태학사, 1993.

테리 이글턴 저, 방대원 역, 『미학사상』, 한신문화사, 1999.

Abstract

The Ideological Strategy of the Right-wing Literary Group in the Liberation Period

- Focused on the Criticism Published in Baekmin_ -

Kim. A-rum

"Baekmin, was published in December 1945, the year of liberation, that is, when the left wing was full of enthusiasm. It is a right-wing magazine that continued its legacy throughout the liberation period.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deology that Baekmin create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right-wing literary circle within the framework of a literary magazin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direction of writing and editing of Baekmin. Based on this, the ideology fixation process was examined in two ways.

The first aspect is that of criticism of the left-wing literature seen in the process of seeking ideology. Through Kim Dong-ri and Im Geungjae, the purpose of left-wing literature was strongly criticized, and the process of logically criticizing the ideology of left-wing literature through Jo Yeon-hyeon and Tae Yoon-gi was analyzed. And with this background as collateral, I note the second point -- that Baekmin produced an ideology that can self-align. The logic of Lee Heon-gu and Kim Kwang-seop who mentioned national literature and Kim Dong-ri and Jo Ji-hoon who mentioned pure literature were analyzed. This asserts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literature, as opposed to the left.

Was the purity and autonomy of literature that Baekmin dreamed of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possible? Ultimately, the success or failure of "Baekmin" depends on this ques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exploring and fixing the ideology of "Baekmin". Nevertheless, "Baekmin," was unable to overcome the 'purpose' of literature

that it set itself as an antithesis, and became a magazine that served the power of right-wing literary circle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process of producing ideolog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hich had been focused on individual writers, to the dimension of the medium of "Baekmin".

Key Words: national literature, pure literature, left-wing literature, Kim Dong-ri, Jo Ji-hoon, Kim Kwang-seop

김아름

소속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arumkim@shinhan.ac.kr.

이 논문은 2022년 01월 31일 투고되어 2022년 03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3월 28일 게재 확정됨.